

제2강 제2종(1:2) 대위법

1. 과제

다음 보기에서 16세기 대위법의 1종 풀이에 맞지 않는 예를 찾아 번호와 근거를 밝히시오.

(a)

C.F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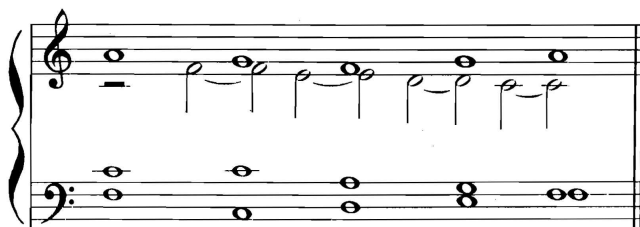
(b)

C.F.

2. 16세기 대위법에서 강박과 약박을 이해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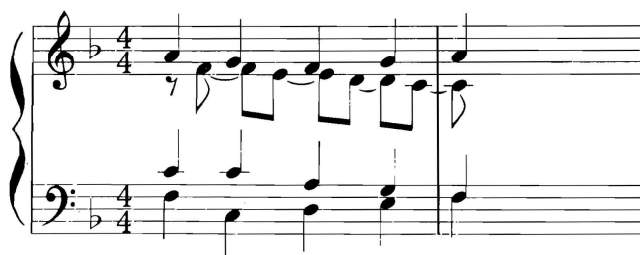
- 일반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음악은 대개 2분음표를 기준으로 함
- 1분에 72 내지 80의 속도
- 악보를 통한 비교

a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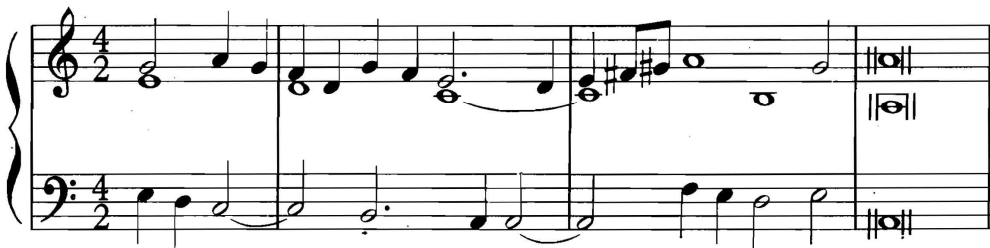
b.

Jesu, Leiden, Pein und To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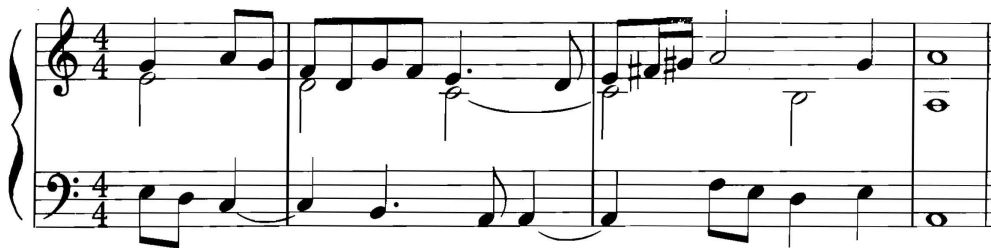


<다른 예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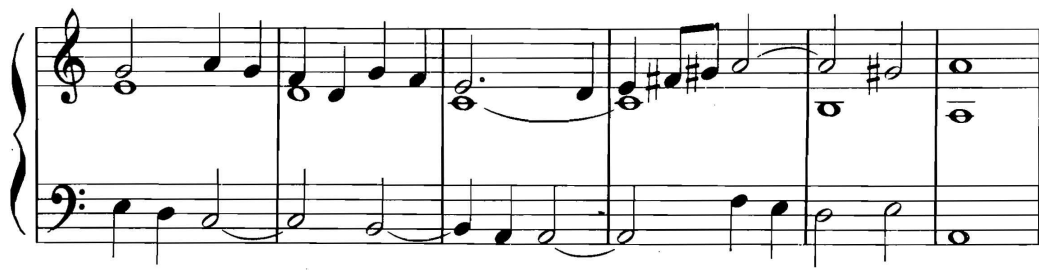
무반주 합창곡의 기보



후기 바로크의 기보



대위법 연습에서의 기보



- 16세기 대위법은 2분음표를 박자의 단위로 삼고 강박과 약박을 구분한다. 실제 16세기 음악에서는 마디선을 사용하지 않지만, 대위법 풀이에는 마디선이 유용하다.

1) 선율적원칙

- 제 1종의 선율에 관한 사항이 마찬가지로 적용됨

- ① 같은 음을 반복하지 말고, 붙임줄로 연결하지도 말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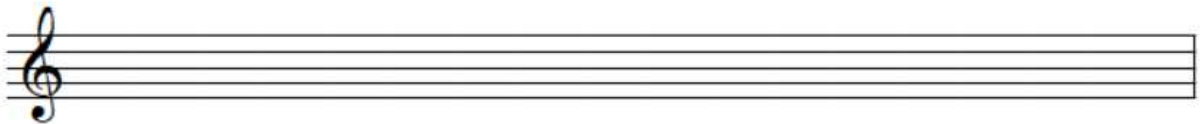


- ② 각 성부의 리듬적인 독립을 위해서 대선율은 약박에서 시작할 것(김홍인 - 시작은 두 개의 2분음표 혹은 2분셈표와 2분음표로 시작할 수 있다)

- ③ 순차진행 뒤에 강박자로, 같은 방향으로 도약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다.



- ④ 강박과 강박 사이에 생긴 증 4도나 증 5도는 선율의 진행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할 것. 이 음정들은 선율의 최상 혹은 최저음으로 사용하지 말 것.



<김홍인>

세음이나 네음을 통한 증4도: 순차 진행을 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4음 간에 걸친 증4도 진행도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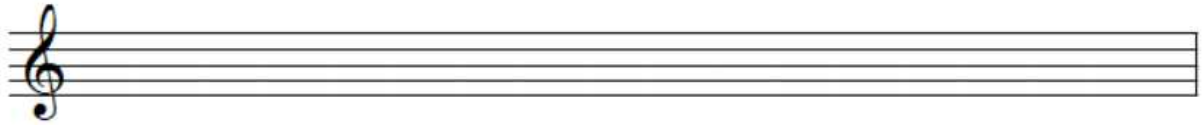


- ⑤ 바람직한 음형, 적절한 음역, 최고점과 최저점을 활용할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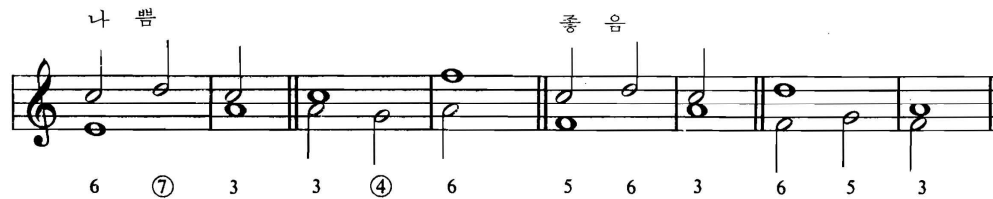
2) 화성적 원칙

시작 음정은 1종과 같다



① C.F.와 함께 올리는 음은 강박이고, 다른 음은 약박이다.

② 강박은 반드시 협화, 약박은 협화 혹은 불협화가 모두 가능. 단, 불협화는 경과음만 사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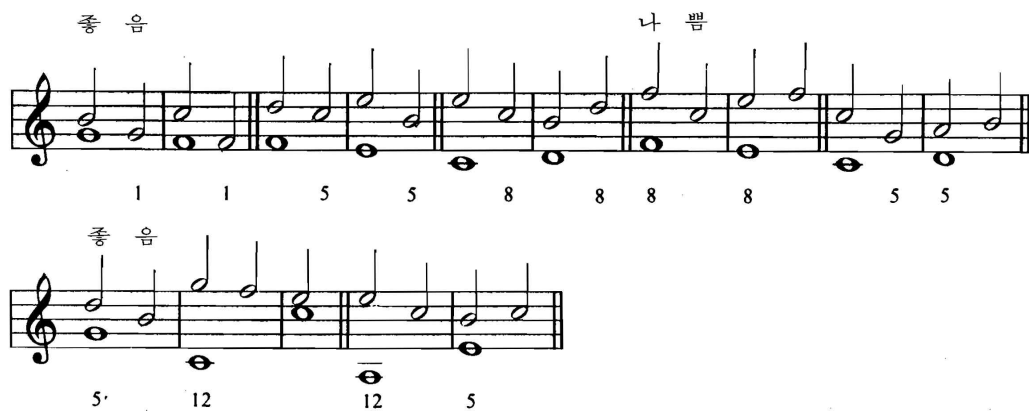


③ 보조음은 당시 양식이 아님. 단 협화음정을 이루는 불협화 음정은 성립이 가능함

④ 완전 1도는 약박에만



⑤ 병행 1도, 5도, 8도 금지



⑥ 은복 8도와 5도 금지



⑦ 종지 만들기

<이해성>

C. F.가 위에 있을 경우, 종지 끝에서 둘째 마디에 온음을 쓸 수 있다. 이끈음으로 3도 상행 도약 할 수 없다.(현재 Roberts의 교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)

도리아 프리지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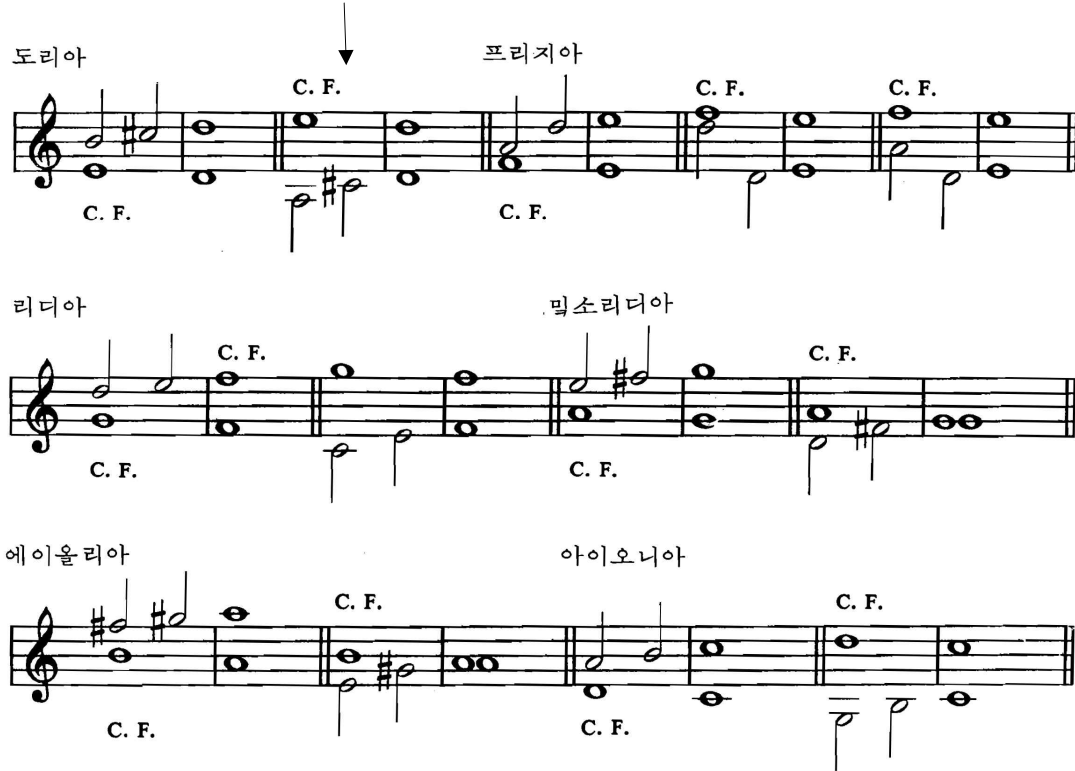
C. F. C. F. C. F. C. F.

리디아 밀소리디아

C. F. C. F. C. F.

에이올리아 아이오니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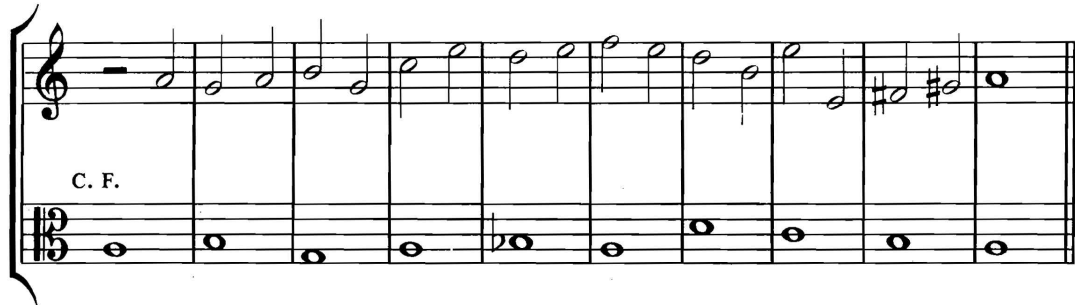
C. F. C. F. C. F.



<분석 예>(교재 p. 22)

c. 에이올리아

C. F.



d. 도리아

C. F.



과제.

1. 다음 예의 선법을 밝히고, 2종 대위의 풀이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설명하시오.

2. 다음 두 예의 선법을 각각 쓰고, 대선율에 빠진 음을 적절하게 채우시오.

(a)

(b)